

## ‘나눔의집’을 통한 지역섬김 이야기

국 총 국 (신부, 성공회 원주교회)

### 1. 농촌목회의 동기

필자는 성공회 사제로 서품 받고 충남 부여에서 첫 사목을 시작하였으며, 원주는 사제로서 두 번째 사목지이다. 부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공부방, 그리고 작은 신앙공동체를 이끌었다. 원주는 2010년 2월에 교회와 나눔의집 대표로 발령받아 사목하고 있다.

### 2. 지역상황

원주시 호저면 지역은 총 17개리 4,300여명이 살고 있다. 이 중에서 거리상으로 떨어져있고 도시화가 진행된 만종5개리를 제외하면 12개리 2,900여명이 살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섬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마을이 나뉘어져 있으며, 원주의 최북단으로 횡성과 맞닿아 있다. 성당이 위치한 주산 1리에 면소재가 있는데, 비교적 면소재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원주와 횡성이 가깝고 인구수가 많지 않다보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탓인 듯하다. 면 전체를 보면 초등학교가 4곳인데, 두 곳은 아동수가 적어서 통합학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병원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보건진료소가 2곳이 있다. 농촌지역에서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세세한 형편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다.

호저면은 가톨릭농민회와 원주생협 유기농생산자 등 자생적 농민단체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곳이다. 반면 완전 노령사회라 할 수 있고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생활문화 측면에서 상당한 욕구가 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은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적 소외감을 안고 있었다.

### 3. 성공회 원주교회와 나눔의집 운동

#### 1) 개척기

성공회 원주교회는 1996년 9월 6일, 원주YMCA 강당에서 성인 신자 6명이 첫 미사를 봉헌하면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상주하는 성직자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으나, 작지만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성숙해 갔다.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1999년 원주의 빈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성동에 조립식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다. 이 때 사회선교기관인 원주나눔의집도 함께 설립되게 되는데, 그 경위는 참된 교회 상에 대한 오랜 토론의 결과였다.

#### 2) 나눔의집 설립

원주교회는 '성령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를 모토로 하면서, 교회재정의 반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나눔의집을 설립하였다. '성공회 나눔의집 운동'은 1980년대에 시작된 운동으로, 당시 성공회 젊은 사제들이 도시빈민지역에 들어가 가난한 민중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모형을 만들려한 '대안적 교회 운동'이다. 원주교회의 경우는 일반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성직자와 신자가 함께 토론하여, 일반교회와 나눔의집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 명의 성직자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 되는 성공회 인사행정 속에서도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오고 있다.

### 3) 호저면에 성당 건축



호저면에 건축중인 성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교회와 나눔의집은 또 다른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다. “원주시내 권의 발전과 성장 이면에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어 가는 면단위 농촌 마을을 섬겨야 한다. 경쟁과 무한소비로 생명을 죽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영성적 치유와 기도를 할 수 있는 피정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도와 고민은 결국 호저면 생협물류센터 근처로 교회와 나눔의집을 이끌었고, 2007년 6월 호저면에 성당과 나눔의집을 새로이 축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나눔의집은 학성동 도시빈민 밀집지역과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함께 벌여나가고 있다.

### 4) 교회-나눔의집 관계의 독특성

원주교회와 나눔의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독특성을 갖고 있다. 원주교회는 교회위원회를 통해서 나눔의집 운영 위원회에 2명을 파송한다. 그리고 사목비를 제외한 교회재정의 절반을 매월 정기후원한다. 나눔의집 사무실과 활동하는 장소로 교회공간을 제공한다. 신자들은 개별적으로도 물적 인적 자원을 후원하고 있다. 반면 나눔

교회와 나눔의집은 빈민지역인 학성동에 ‘무료공부방’을 열어 방과 후 방치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소외된 교육과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 어르신 가정결연 사업, 한방진료봉사,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푸드뱅크 음식나누기 등 지역을 섬기고 변화시켜 가기 위한 활동

의집은 원주교회를 포함하여 일반사회 개인/단체 후원인들의 인적, 물질 자원을 바탕으로 나눔 활동을 하게 된다.

나눔의집이 다른 사회봉사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실무자공동체'에 있다. 실무자공동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 실무자공동체는 매주 공동체미사를 드리고, 매월 워크숍과 피정을 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나눔의집 활동을 조명하면서 활동한다. 나눔의집 활동은 독립적이지만, 원주교회의 사회선교활동으로 맥을 같이하는데,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끈이 되는 것은 활발한 인적자원의 교류이며, 복음적 삶을 숙고한다는 공동의 비전이다. 곧 성령이시다. 교회는 나눔의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더 잘 알게 되고, 지역의 필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나눔 운동을 펼칠 수 있다. 나눔의집은 교회와 사회를 이어주는 사랑의 띠이다. 지역민들에게도 '교회'라는 종교성을 상쇄할 수 있어 마음을 열고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5) 원주교회 조직도

- ① 신자총회 - 1년에 1회, 성인 세례신자 참여.
- ② 관할사제 - 교구장 파송 사제. 관할 총괄사목.
- ③ 협동사제 - 교구장 파송 사제. 나눔의집 사목.
- ④ 교회위원회 - 2년에 1회 신자총회에서 위원선출. 민주적 대의기구. 매월 교회위원회 실시. 전례분과, 교육분과, 선교분과(나눔의집 지원), 친교분과, 총무분과, 관리분과가 있음.
- ⑤ 활동단체 - 아나임회(성인 여성) 참나무회(성인 남성) 베리타스(학생회) 주일학교

## 6) 교회 상황 총평

원주교회는 개척 18년째의 젊은 교회다. 현재 성인 주일 평균출석 수는 약 30명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50여명이다. 도시지역에 개척하여 YMCA 강당과 전세 건물에서 모이다가 농촌지역에 성당을 건축하

였다. 원주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눔의집'이라는 사회선교기관을 설립하였고,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성당이 위치한 농촌지역에서는 나눔의집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사회사목을 펼치고 있다.

#### 4. 사역의 내용 - 나눔의집을 중심으로

나눔의집은 도시빈민선교로 시작되었으며 주민 공동체운동, 사회복지 전달체계, 시민사회운동, 대안적 교회운동이 포괄되어 있다. 나눔의집 영성과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몸으로 사는 부활의 증인이고자 한다.
- ② 우리는 기도(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 ③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 ④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자 한다.
- ⑤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 ⑥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

나눔의집 실무자(현재 6명)들은 종교와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 영성과 신앙고백을 나누며 예수정신을 공유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 마을공동체 운동

- ① 늘봄학교  
농촌지역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시.
- ② 햇살작은도서관  
도서대출 및 책읽기 모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③ 어르신 반찬나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매주 목요일 밑반찬 나눔.
- ④ 문화동아리활동  
몸피기운동, 풍물 동아리, 난타동아리, 우쿨렐레 동아리
- ⑤ 클라라공방

재봉틀을 이용한 생활문화 홈패션 공방.

⑥ 마을신문만들기

주민기자, 지역단체와 협력, 월 1회 호저신문 발행.

**2) 도시빈민지역 아동청소년 사업**

① 햇살지역아동센터 :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문화

② 청소년진로자립센터 :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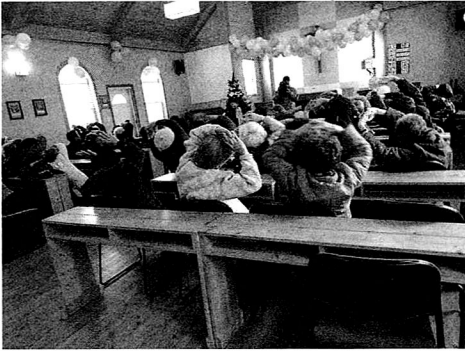
③ 햇살누리 요셉의집 : 남자 청소년 그룹홈

**3) 우렁각시 :** 가사관리사 파견, 여성일자리 사업.

**4) 공동체기금 희망애찬 :** 출자자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업

본고의 주제가 농촌목회이므로 나눔의집을 통해 호저면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에 나열된 사역들 중에서 농촌마을 공동체운동 부분이다. 나눔의집 사무국이 교회와 함께 2007년 호저면으로 옮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이 가장 큰 욕구는 문화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호저면에는 문화시설이 없어서 여가를 즐기고 싶어도 시내에 가야하고 해가 진 이후에나 농사일이 한가해지기 때문에 교통편이 불편한 형편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프로그램이 없어서 농촌에 사는 즐거움이 반감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호저면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늘봄학교를 시작하였다. 늘봄학교는 경로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4-50명의 어르신을 모셔서 오전과 오후에 1시간씩 인형극, 음악공연 등의 문화 활동과 도자기, 종이접기 등의 체험활동, 건강강의, 테이핑요법, 건강체조 등의 건강프로그램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경제상식, 법률상식 등의 강의를 열린다. 점심식사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면소재지까지 차량운행을 하여 가축사료, 비료, 생필품 구입,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늘봄학교 건강체조**



**문화동아리 난타반원들의 연습 모습**



**클라라공방에서 만든 생활소품들**

여러 마을에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 소식들을 나누고 집에서 농사지는 것이나 화초 등을 나누기도 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몸이 불편하여 왕래가 없는 어르신들이 늘봄학교를 통해 소통하며 단절된 끈이 이어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장년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지금은 몸펴기 운동(몸살림운동)을 하고 있으며, 풍물, 우쿨렐레, 난타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해가 떨어져야 농사일이 끝나는 농촌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은 주로 저녁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동아리들은 마을 행사 때에 흥을 돋우며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농사일 외에 생산적인 일

을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홈패션 클라라공방을 시작하였다. 재봉틀을 이용하여 가족들의 옷가지와 액세서리를 만들고, 소량 판매를 하기도 한다. 천연염색과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도 겸하여 진행된다. 농사일에 지쳐있는 주부들에게 농사일 외에 흥밋거리와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향후에는 기술이 늘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의 빈 곳을 채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수급자 독거노인에게에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빈틈을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른다. 면사무소 사회복지사, 보건진료소장, 종교인, 선한이웃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나눔의집에 요청하면 매주 직접 조리한 반찬을 지원한다. 그리고 연탄지원, 집수리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후원인이나 지역단체와 연결하는 일도 하고 있다. 후원금과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다.

또한, 성당 건물 한 곳을 작은도서관으로 꾸몄다. 원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의 도움으로 최신 베스트셀러가 매년 채워지고 있으며, 현재 약 5천권 정도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월 평균 50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저신문'이라는 마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의 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지역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다. 호저면의 각종 소식, 경조사, 광고, 좋은 칼럼과 사진들이 실려서 월 1회 발행되고 있다. 나눔의집, 원주생협,



고니골, 생담마을, 보건진료소, 면사무소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문 편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호저신문 편집회의**

이런 사업들은 성당과 사무실, 식당 등 교회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교회는 2007년 농촌지역에 성당을 건축하면서 평일에 건물을 나눔의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예를 들어 장의자 대신 개인의자를 두어 필요

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은 남성 교우들이 손수 나무로 서고를 만들었다. 교회 사무실은 나눔의집 실무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사업의 진행은 나눔의집 실무자들이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공간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자원봉사자로 후원자로 재능기부자로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지역을 섬기는 교회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점, 나눔의집을 직접 설립했다는 점, 무엇보다 모든 사업들이 예수정신에 바탕을 두고 실천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7-8여 년 동안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도 더 마음을 열고 있다. 성당 주변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록해살카페를 만들었는데, 사업을 통해 만났던 많은 주민들이 흔쾌히 이 일에 동참해주었다.

## 5.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원주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살맛나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에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관찰사제로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 교회 신자가 더 늘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리단위 마다 교단은 다르지만 교회가 들어서 있고, 자원봉사자와 참여주민들이 기존 교회의 신자들이므로 자칫 그런 욕심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나눔의집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선교활동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감동받고 기존 교회가 더 활기차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처음 부임했을 때와 비교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단체들과의 유대가 증진되었고, 낮은 이방인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공동체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기로 소망한다.

문제점으로는 교회의 신자들이 지역사회 주민이 아니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나눔의집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고, 성공회 원주교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지자가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들의 낮은 몸부림이나 시혜자 썸으로 보지 않을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영혼의 구령사업만이 본업이라고 여기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의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들도 목회자들이 사회에 관심하는 것을 그리 반기는 눈치만은 아닐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교회들과의 연대가 예수운동의 결실을 맺게 하리라 확신한다.

지역에 크고 작은 환경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재활용업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 차 한대 겨우 지날 수 있는 깊은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문제와 통행의 문제를 호소하는 농민, 지금

은 막아내기는 했으나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 사격장 문제, 기업도시에 RDF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 다이옥신으로 인해 친환경농사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걱정하는 농민들, 대도시근교의 농촌마을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함께 발전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동체가 빠르게 붕괴하고, 각종 오염시설들이 집중되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농촌의 촌로들로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보다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사그라지게 되지 않을까? 7-80세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 왜 이렇게 호저면은 자살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農